바캉스 비용

(행14:19~28)

19.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20.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1.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2.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23.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24.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25.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앗달리아로 내려가서
26.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 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27.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28.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바캉스 비용>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조급한 분들은 아마도 올여름 바캉스를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자분들 같으면, 사람들 눈앞에서 자신 있게 비키니를 입을 수 있기 위해 몸매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다이어트로 들어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남자들 같으면 근육질 몸매를 지인들에

게 자랑하기 위해서 헬스클럽의 회원권을 끊은 분도 계실 것이에요.
또 옷도 틈틈이 싸게 나오는 것들을, 바캉스 철을 대비해서 사두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뭐라 뭐라 해도 제일 신경이 많이 쓰이는 바캉스를 위한 준비는 바캉스 비용입니다.
바캉스가 바캉스 되려면 이 일상적으로 무한 반복되는 routine함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얽매여 살던 규칙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또 평상시에 늘 마음에 강박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돈 쓰는 것에 대한 문제, 아껴야 된다, 저축해야 된다, 내 집을 장만해야 된다, 뭐 이런 억압된 마음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야 됩니다.
바캉스를 가서까지도 이러한 것들이 강박감으로 그대로 나를 짓누른다면, 휴가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휴가는 뭐냐? 자유입니다.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이고, 가벼워지는 것이고, 약간의 일탈이 필요합니다.
일탈이라는 게 뭐에요? 평소의 규칙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일찍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 했어야 됐고,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갔어야 됐는데, 좀 늦게까지 잡니다.
또 내일 아침을 위해서 언제나 열한 시에는 잤어야 됐는데, 밤 두시 세시까지 카드놀이를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놉니다.
부담이 없어요, 자유가 있어야 되요.

이러기 위에서 바캉스 비용은 언제나 큰마음을 먹고 마음에서 뚝 떼 내야지 마련이 됩니다.
알뜰한 바캉스를 계획해서 가지만 이 알뜰함을 계속 유지하다보면, 성공적인 경우 보다는 잘못하면 비참해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바캉스 가서 비참 해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고급 레스토랑에서 하루 저녁 한 끼는 사먹어야 되요.
그리고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오락비용, 워터피아 한 번 들어가서 하루 종일 놀려면, 몇만 원 들어갑니다, 한 사람 당.
좀 써야 되요.
그리고 바가지인줄 알면서 애들 핫도그 하나 사주려면, 보통 휴게소에서 2, 3천 원 하는 거, 피서지 같은 데에서는 오천 원 육천 원 해도 그거 사 먹어야 되요.
그거 다 아끼다가는 바캉스가 바캉스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먹고 뚝 떼 내야 되고, 그래서 그 떼어놓은 한도 안에서, 정해놓은 바캉스 비용

한도 안에서는 아까운 줄 모르고 마음의 부담감 없이, 절약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없이 좀 써야, 이 바캉스가 바캉스 되고 좀 풀어지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젊은 부부가 많은가 봐요.
우선 카드를 가지고 마음껏 써요, 바캉스 가서.
그리고 돌아와서는 다음 바캉스까지 지난번 바캉스에서 썼던 모든 비용을 벌어서 갚습니다.
그리고 다 갚고 나면, 또 바캉스 철이 돌아오면, 또 가서 마음껏 씁니다, 카드를 가지고.
그리고 또 돌아오면 갚습니다.
아! 이걸 뭐 멋지게 산다 그래야 될지.
아~ 너무너무 인생을 바라보는 인생관이 달라진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근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반드시 필요한, 바캉스 비용처럼 마음으로 뚝 떼 내서 어떻게 지불이 되더라도 아까운줄 모르고 지불될 준비를 할 수 있을 만큼, 따로 떼서 책정되어야 될 비용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따로 뚝 마음에서 떼 내서, 어떻게 사용이 되든 아까운줄 모르고 지출할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이런 바캉스 비용 떼듯이 비용을 떼 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였더라도 복음의 효과가 나타나기가 힘듭니다.
신앙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권면하면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믿음에 머물러 있기가 힘듭니다.
바캉스 비용을 큰마음 먹고 마음에서 떼 내듯이 그렇게 삶에서 비용을 떼 내지 않으면 믿음에 머물러 있기가 힘들다 이거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참 기가 막힌 사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1차 전도여행의 막바지에 달했어요.
마지막 전도지인 더베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그 더베와 가까이 있는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다리를 못쓰는 장애우를 바울이 낫게 해 주지 않습니까?
이 광경을 본 이방사람들, 여호와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안 된 사람들이, 제우스신을 섬기고, 헤르메스 신을 섬기던 그 풍습대로, 제우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났다, 헤르메스라고 하는 전령의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믿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며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극구 사양해서 겨우 그들을 설득시키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곡식을 다 결실하게 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런 곡식이 자랄 수 있게 비를 내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직 그 분만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다'라고 겨우 설득시켰습니다.
이렇게 잘 마무리되어 가려고 하는 즈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을 적대하던 유대인들이, 불원천리하고 이고니온으로 와서, 이고니온에서도 바울이 전도하고 바나바가 전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의 적대자들을 규합해 가지고 루스드라까지 쫓아왔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지금 제우스신이고, 헤르메스 신인줄 알고 제사드리려던 자들을 잘 타일러서 마무리 짓고 복음을 전도하고 있는 중에,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끌어내 갖고 돌로 쳤는데 얼마나 돌로 심하게 쳤던지, 바울이 아마 실신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정도 돌에 맞았으면 아마 죽었을 것이라고 느낄 정도로 돌로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다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삼은 자들까지도 죽은 줄 알고, 시체처럼 된 그 바울을 성 바깥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제자들이 바라보면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 믿음의 스승인 바울을 장사지낼 것인가?
그리고 바나바는 왜 빠졌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마 바울이 주로 말씀을 전했으니까, 바울 하나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 거 아니겠나 추측을 해 보지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바울을 장사 지내려고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벌떡 일어나서 바울이 다시, 자기를 돌로 친 자들이 머물고 있는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광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도대체 바울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겨요.
방금 전에 자기에게 제사를 드리고 경배하려 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천지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비를 내리시고, 우리들이 먹고사는 곡식을 다 키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맞게 내버려두시

는 걸까요? 언제나 이런 고난을 받는 현장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죽으신 그 고난에 동참해서 같이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지, 주님이 고난 받은 것처럼 우리도 고난 받아야만 된다고 하면 주님의 고난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대신 고난 받았다면서요, 우리 대신 죽었다면서요, 근데 우리가 또다시 고난 받아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바캉스 비용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기쁜 소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여생 동안은 전부 비용으로 책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는 바캉스 비용처럼 마음에서 떼 내야 됩니다.
아까운줄 모르고 지출이 되도록 완전히 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도, 몸을 중심으로 한 삶 전체를 비용으로 떼 내지 않고, 내가 아직도 그걸 아까워하고, 내가 그걸 관리하려고 그러고, 내가 그걸 개선하려고 그러고, 내가 이끌어 가려 그래 갖고는 절대 믿음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몸과 몸으로 이루어진 삶을 바캉스 비용처럼 완전히 떼 내는 것은 왜입니까?
바캉스 가서 그동안 먹고 싶었지만 못 먹었던 비싼 레스토랑에서 한번 사먹고, 그동안 평소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오락비용을 지출하면서 자유롭게 마음의 소원들을 풀어내는 것처럼,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대로 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던 모든 하나님의 억압이 풀어지는 바캉스 기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좀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마음껏 자유롭게 풀어 갈 수 있도록 바캉스 비용처럼 내 마음으로부터는 떼 내야 되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의 내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그래서 이게 안 되서 진행되는 삶의 상황들을 내가 눈여겨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잘 산다고 하는 것의 기준을 따라서, 이게 왜 이렇게 될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인도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며, 선악의 기준을 아직도 내 마음에 갖고 있으면서, 내가 내 인생을 판단하고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려고 해 갖고는, 절대 절대 절대 제곱으로 믿음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는,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은 이 몸을 포함해서 몸을 중심으로 이

루어진 삶 전체는, 하나님이 바캉스 오신 기분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바캉스 비용으로 떼 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게 하시든, 순교를 하게 하시든, 어떻게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내가 생각하는 길과 천차만별이라는 걸 인정하고, 아까워하지 말고 완전히 마음에서 떼 내고 나는 이제 마음의 기쁨을, 이 몸으로 이루어진 삶에서 내가 찾는 스타일대로, 내가 갖고 있었던 기준대로 찾을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몸과 몸으로 이루어진 삶은 완전히 하나님 마음대로 쓰도록.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것은, 반드시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잘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순교는 있을 수가 없지요, 요절하는 건데, 박복해도 그렇게 박복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한계에 지어놓고 보면, 이 세상 안에서만 보자면, 그들처럼 박복한 사람들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 마음대로 쓰도록, 하나님께 비용으로 바캉스 비용 떼 내듯이 떼 내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떼 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돌에 맞아 죽을 뻔했으면서도 벌떡 일어나 가지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예 떼 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고 말고 하는 것은 바캉스 비용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캉스 비용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지출을 하실 거니까 나는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어요.
본문 20절에, 이제 죽은 줄 알고 시체처럼 되어버린 바울을 성 바깥으로 내치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따라 나와서, 자기 스승이 다 죽은 줄 알고 바닥에 내쳐져 있는 그 주위를 빙 둘러서서,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하여간 둘러 있으면서 장례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 가운데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울 서신 13개 서신 가운데 6개 서신의 공동저자이자, 바울이 자기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언급하면서 사랑했고, 바울이 어디를 가나 잊지 않고 편지를 하곤 했던, 자식과 같은 디모데가 이 제자 속에 섞여있었습니다.

당시 학자들이 모든 걸 다 계산해 볼 때, 디모데의 나이 열다섯 살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중학교 2학년입니다.
중학교 2학년 아이가 바울 선생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바울을 멘토로 삼았습니다.
자기의 멘토인 바울이 그 좋다는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 잘못도 없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로 아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멘토가 복음을 들고 사회적으로 자기의 미래를 멘토에서 볼 수 있도록, 지도자급으로 인간 사회에서 성공하고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깨어나서 루스드라를 떠날 때 한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믿음에 머물라'고 합니다.

열다섯 살 중학교 2학년에 해당되는 디모데가 이 모든 사실을 볼 때, 어떻게 복음을 받아 들였겠는가, 정말 신기할 뿐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좋은 일이 생기기는커녕,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고, 멘토인 스승께서 '복음을 받고 하늘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살 때 많은 고난이 따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기준으로 볼 때, 2등이라면 서러울 만큼 열정적인 신앙의 소유자가 됩니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아이가.
그러니까 애초에 믿음이 뭔가를 분명하게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뭐냐?
내 마음은 이제 행복과 기쁨을 이 땅을 떠난 아버지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에서 받는 것이고, 내 마음이 하늘에 머물고 있을 때, 남아 있는 이 지상의 몸과 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내 삶은, 바캉스 가서 우리가 좀 일상과는 다르게 자유롭게 아까운 줄 모르고 비용을 지출하듯이, 하나님께서 내 몸과 내 몸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삶을 아까운 줄 모르고 어떤 일에든지 지불하며 사실 때, 내 마음을 뚝 떼놓고 아까운 줄 모르고 완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뜻을 정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어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 마음이 이 하늘을 계속 향해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믿음에 머물러 있기 위한 처음이자 마지막 수단입니다.

십자가에서 계~속 오늘 아침에도 죽는다는 건 뭘 뜻하느냐.
오늘 하루 주어지는 모든 이 지상의 삶을, 바캉스 비용 떼 내듯이 떼 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지출하며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게 바로 그 뜻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내 삶 전체를, 내 몸과 몸으로 이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캉스 비용으로 내 놓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사업이 좀 안 될 때라도, 하나님의 그 백 수 앞을 내다보시는 그 깊은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몸과 내 몸으로 이루어진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여간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조금 이해 안 되는 것 같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안 되는 것 같으면 벌벌 떨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깊으시고 높으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깊은 뜻 안에서 결정된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음으로써, 당신의 그 무한한 지혜에 근거돼서 계획된 내 삶을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셨던 것들을, 이제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고, 내 몸과 이 나머지여생을 하나님께 바캉스 비용처럼 떼어드림으로써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있는 중이니까,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돌로 치는 자들이 나타나더라도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겁먹을 일도 아니고, 두려워 할 일도 아니고, 내가 이 순간에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은 비참한 것도 불행한 것도 실패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불하고 있는 비용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불 비용은 헛되이 쓰이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끼고 아껴서 최대로 잘 쓴다고 해봐야, 하나님이 완전히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지출보다 더 잘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걸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서, 오늘 하루의 삶 전체가 이 지상에서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캉스 비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보십시다! 하나님 마음대로 어떻게 쓰시는지.
한 번 보자고요.
보면서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모처럼 다가온 바캉스를 기쁘고 자유롭게 지내기 위해, 큰마음 먹고 비용을 떼내고 아낌없이 지불하며 사용하듯이, 이제 십자가를 받아들인 이후 내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 있게 하시고, 이 몸과 몸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삶은 다시 마음이 내려와 아까워하거나 붙들고 계획하고 이끌어가려 하지 말고, 아버지의 자유로운 지출에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